

# “해남서 ‘위드 코로나’ 첫 관광을”

### 군, 시티투어 등 백신안전여행 재개...명량해상케이블카·스카이워크 우수영권 코스도 관심

해남군이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백신안전여행’을 통해 위드코로나 대비 관광 활성화에 대응한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 등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이 예상됨에 따라 ‘해남 시티투어 버스’와 ‘1박2일 백신안전여행’ 등을 재개한다.

여행의 주 타깃은 백신접종완료자들로 하고 있다. 해남 시티투어의 경우 모객 이틀 만에 10월 한 달간 모든 일정에 대해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 시티투어버스는 1일 여행프로그램으로 매주 금·토·일 광주유스퀘어에서 출발한다.

코스·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포털에서 ‘버스 한바퀴’를 검색하면 된다.

백신안전여행은 서울에서 출발하며 여행사 접수창구(02-318-1664)로 문의하면 된다.

백신안전여행 상품은 각종 체험과 스토리를 더해 관광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 대표빵으로 유명한 고구마빵을 직접 만들거나 막걸리·민오체험, 숲치유 프로그램이 인



1일 여행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 시티투어 버스.

기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한 명량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가 있는 우수영권 코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안전여행 운영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첫 여행의 시작은 땅끝 해남에서’라는 주제로 한 관광 상품도 구성한다. 상품 구성 협의가 완료되면 티문

과 쿠팡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여행을 통해 해남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 보리마당에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만든다

### 시, 창작·체험·커뮤니티·전시 공간 등 조성



목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서산동 시화골목.

목포시가 청년층 유입을 통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 4000㎡에 3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할 예정이다.

건물 67동과 국유지와 사유지 등 토지 57필지에 조성되는 ‘청년문화예술 창작촌’에는 창작공간과 체험공간, 커뮤니티 및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다.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심속 흉물물방치된 폐·공가 활용과 원도심 마을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무허가 주택정비를 통해 환경정비와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령화된 마을에 청년예술인을 유입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리모델링 및 신축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공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골목길 정비와 공·폐가 활용 사업이 연계돼 추진된다”면서 “주민과 예술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문명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 완도 전복·광어·해조류, 라오스·네덜란드 간다

### 군·월드윅타, 수출상담회서 170만달러 협약

완도 전복과 광어, 해조류가 라오스 등 3개국으로 수출된다.

완도군은 최근 그랜드워커히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의 동포 최대 경제 단체인 월드윅타 주최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라오스, 네덜란드, 일본과 총 170만달러(약 20

억원)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5월 대전 ‘월드윅타 세계대표자대회 수출 상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윅타가 주최한 수출 상담회에 참가했다.

완도 지역 5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15개국 바이어와 24건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출 상담

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완도 수출 기업인 흥일식품(해조류)이 라오스(100만달러), 완도다(전복, 해조류)는 네덜란드(50만달러), 해성인터네셔널(광어)은 일본(20만달러)과 각각 수출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이 이번 월드윅타 수출 상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 무안군, 지방자치경영대전 장관상

### 군단위 유일 일자리 분야 우수기관...2년 연속 장관상 수상

무안군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군단위 유일의 일자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무안군은 지난해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양파 소비촉진 운동’ 등

농축특산물 분야에서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안군은 지난 5월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 분야에 ‘첨단 항공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우수사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 구상, 투자유치 성과, 국토부의 항공특화산업 지정계획 승인 및 착공 등 민관 승은 노력과 장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정비산업(MRO)이 이



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초기 단계임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성장 산업 발굴 노력과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앙정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갈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산업이 전남도는 물론 서남권 전략산업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탄·탄·하·다’ 영암 청소년들, 환경사랑 실천 앞장

영암 청소년들이

지난 15일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을 위한 선언 및 서약식을 시작으로 환경프로젝트 ‘탄·탄·하·다’(탄소중립, 탄소배출제로, 하나하나, 다함께) 환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탄·탄·하·다 환경사랑 실천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위원들이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미래환경을 위해 탄소배출 제로화와 기후 위기에 관한 토론을 거쳐 자발적으로 만든 탄소중립 환경프로젝트 캠페인이다.

이번 환경프로젝트는 10월-11월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더불어 다음 활동은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의미로 군서면 상대포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EM휴궁 단지기와 문화유적지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캠페인 기간 중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커피 찌꺼기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커피버섯



전동평(왼쪽 네번째) 영암군수가 지난 15일 환경프로젝트 ‘탄·탄·하·다’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을 위한 선언을 했다.

〈영암군 제공〉

키트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응원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리프키트를 배부하여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와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제시한 탄소중립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지구적 움직임에 영암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1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택 스 : 062-222-0195

### 특집

## 생애 최대 프로젝트

# 내 인생의 첫 책

- “소중한 것을 책에 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출판 도전 활법
- “나의 첫 책, 감동의 시작이죠” 자신만의 책 펴낸 3인의 저자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준비하세요” 도서관 기획책 교섭 등 전문가 카이드로 출판 도전 가능

기대 폭 넓어진다 주목할 만한

### 올가을 우리집에 그림 한점 걸어둘까

미리보는 ‘아트강수’

세계인의 대영어로 저자들과 연애인의 학벌과 학력, 의미와 명함력은?

### 예쁜 초대석

## ‘어른답게 말합니다’ 파넬 작가 강원국

“말과 글, 살아있어야 일된 사회죠”

### 이벤트

## 와보로 만나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를 품은 건축물에서 진한 모더니스트 감성이 스민 공간 **박인환문학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신사를 가다 ③-머곡서 자유로운 거말 배처 무질서 속 조화 포피

프랜차이즈 카페, 명함을 만나다 ① 영화 ‘아가씨’와 장 필립 라모의 ‘탕부렁’

희애미 공간 ‘주절리 소문’ 파격적인 예술카페 ‘No.8 in bminor’

예감이 반난 마 시집 광주 FC유니폼 입고 2021시즌 활약, 임지성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봉 보양자 인형받은 박서란 카디프 쿨루르 우승 곡성 출신 ‘수퍼 바리톤’ 김기훈

할인책 ‘백승기’의 한 끼 ‘매’ 화가 최옥경의 아재 연주

문화 피아니스 피터는 레슬링대제 “우리 밑과 우리 옆에 흠뻑 빠져요” 광주 전남 우리가족 부르기